

사회

논술 과외 1주일 200만원 한숨만...

광주 수험생들 서울서 숙식하며 '족집게' 수강... 효과도 미지수

학부모 "지역에서도 체계적인 논술 강좌 마련을"

광주의 한 여고 3학년 강모(18)양은 수능시험 직후 서울에 올라가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고려대 논술 시험 준비를 위해서다.

하루 수강료 10만원(6시간)으로 일주일 수강료만 60만원에 학원에서 정해진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강 양은 "인생을 좌우하는 대학진학이 걸린 탓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학원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유명 '족집게' 강좌의 경우 일주일 맞춘 지도에 200만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강 양의 수강료는 저렴한 편이라고 한다.

2011학년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능 성적에 불안감을 느낀 광주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보다 수시 2차에 기대를 걸고 논술학원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수시 1차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이미 서울 지역 논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수시의 경우 학생부 성적 등에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운 탓에 대학들이 사실상 논술성적으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논술시험이 예정된 대학은 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한양대를 포함해 10곳이 넘는다. 이들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때문에 광주지역 4개 인문계 고교 3학년 교실에는 빈자리가 늘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논술준비를 위해 서울을 찾는 이유로 지역에 체계적인 강좌를 실시하는 논술학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지역 학원에서 인문 계열 논술 준비는 가능하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요구하는 화학, 수리 등 논술에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진학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겨냥한 고액 불법·심야 논술 과외가 성행하는 데다 수강료와 자재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논술 비중이 줄면서 2008년부터 자취를 감췄던 학원들이 논술 특수를 겨냥해 반짝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시 논술 시즌이 되면 무허가로 수업하는 학원이나 강사도 많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학들이 논술에 비중을 두면서 또 다시 사교육의 비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논술 비중을 뒷받침해 줬으면 한다"며 "자식 미래에 돌이켜, 공교육에서 논술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경우 학부모들이 지출해야할 사교육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수시모집 전형에서 연세대의 80%, 고려대의 69%, 서울대의 61%가 논술 시험을 치른다. 전체 정 원으로 보면 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의 33%, 고려대의 38%, 서강대의 46%가 이런 방식으로 뽑는 등 논술 비중이 느는 추세다.

한 학부모는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실정인데 감안해 학교에서 일정 부분 논술을 뒷받침해 줬으면 한다"며 "자식 미래 때문에 올해 겨자 먹기로 서울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적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면접 시작 '두근두근'

전남대의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이 22일 시작했다. 대학 컨벤션홀에서 면접순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해 온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방관들 '火났다'

우산동 모텔 화재 진화 '무혐의' 결론
경찰 '아니면 말고식' 수사 '부글부글'

지난 13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텔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의 적정성 논란(광주일보 11월 15일 6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 안팎에선 경찰이 뚜렷한 정황이나 근거 없이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해 일선 소방관들

의 사기만 꺾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22일 "소방당국의 진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소방관 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권고 성격인 기관통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6층 규모의 모텔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는 점과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목격자와 유족들의 항의를 토대로 이례적으로 소방당국의 과실 유무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즉각 경찰의 수사 방침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화재 진화가 관련 매뉴얼에 맞게 이뤄졌다"며 진화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방서 안팎에선 "소방관들이 경찰의 '아니면 말고식' 수사로 이중고를 겪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

롯데슈퍼 양산점 '깨끗죽'에 이물질

생선 내장 추정 6~7 덩어리

대기업 유통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곡류 가공식품에서 생선 내장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특히 이 제품은 노약자나 환자들을 위한 영양 식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유모(50·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집 근처 롯데슈퍼 양산점에서 '유성 깨끗죽(12개) 한 박스를 구매해 마시던 중 입 안에서 물감대이 이물질이 발견됐다. 유씨는 치아 교정으로 인해 식사를 할 수가 없어 식사대용식으로 이 제품을 음용하고 있었다.

유씨는 "6번째 캔을 섭취하던 중 입안에 이물질이 느껴져 뱉어내자 제품 속에서 생선 내장으로 보이는 이물질 6~7 덩어리가 나왔다"며 "지금까지 이런 상품을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억겁고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제품은 2013년 6월 10일까지 2년 넘게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유씨는 이물질 발견 직후 판매업체인 롯데슈퍼 양산점에 연락을 했고, 21일 밤 식품 구매 담당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이 유씨의 집을 방문해 문제의 상품과 이물질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갔다. 현재 롯데슈퍼 양



롯데슈퍼 광주 양산점에서 판매된 문제의 깨끗죽에서 나온 생선 내장으로 추정된 이물질(앞)./김진수기자 jeans@

산점은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전면 철수한 상태다.

해당 제조업체인 '신창종합식품'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본보의 전화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체인 롯데슈퍼 본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호남지역에서 판매되는 특정매입상품으로 각 점포마다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뺑 뚫린' 해상경계

밀입국 중국인 진도 이어 신안서 주민 신고로 6명 검거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진도에 이어 신안에서도 주민의 신고로 붙잡혀 허술한 해상 경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목포경찰은 22일 오후까지 국토의 최서남단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서 중국인 밀입국자 7명 중 6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1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새벽 6시께 가거도의 한 교회를 숨어있다가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군 당국과 경찰, 해경 등은 지난 17일 중국인 8명이 진도 관매도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데 이어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서남해안에서 밀입국이 적

발편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밀입국자들이 검거된 가거도는 물론, 추자도와 소록산도 등에는 군과 해경의 레이더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민의 신고 전까지 밀입국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군과 해경 모두 "1차 소행 선박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해상 경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중국인 밀입국자를 쫓는 한편, 붙잡힌 6명을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와 대공 의의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나원침 (8177) 김중두



여자친구의 친구 성추행

광주서부경찰은 22일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의 친구를 성추행한 이모(27)씨를 중간재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모(여·21)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친'의 친구인 한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포르쉐 타고 싶어" 전시장 침입

○수입차 전시장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평소

타보고 싶었던 고급 승용차를 '시승'해보던 30대가 경찰서행.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허모(38)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외제차 전시장의 잠금장치를 부순 뒤 전시돼 있던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보는 등 여유를 부리다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체포됐다는 것.

○허씨는 평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수입차를 촬영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포르쉐를 타고고 싶었을 뿐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geumsooju.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객실요금 4만원부터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케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